

나주, 프랑스와 교육·문화 ‘국제교류’ 본격화

윤병태 시장 등 ‘한불수교 140주년 기념’ 파리 방문
100만달러 농산물 수출 협약…“세계에 알리는 계기”

나주시가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앞두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교육·문화도시인 클레르몽페랑시와 본격적인 국제교류 확대에 나섰다.

24일 나주시에 따르면 윤병태 나주시장을 단장으로 한 ‘나주시-프랑스 국제교류 협력단’은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프랑스 파리와 클레르몽페랑시를 방문하고 있다.

이번 프랑스 방문은 1851년 신안 비금도에 표류한 프랑스 포경선 ‘나르발(Narval) 호’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한불간 인도주의적 첫 외교 접촉을 바탕으로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국제교류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 기했다.

윤 시장이 이끄는 나주시-프랑스 국제교류 협력단 일행은 23일 첫 일정으로 프

랑스 파리에서 유통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나주 대표 농수산물품의 유럽 진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에이스푸드와 100만달러 규모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일열 주프랑스한국문화원장을 만나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한 문화 협력사업 추진과 외교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24일에는 클레르몽페랑시에서 올리비에 비앙키(Olivier Bianchi) 시장 등 시 관계자들과 만나 나주-클레르몽페랑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문화·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한 교류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5일에는 파리에 있는 주프랑스대한민국대사관을 방문해 문승현 대사와 만나 클레르몽페랑시를 비롯한 프랑스 도시와



윤병태 나주시장(왼쪽 네번째)은 지난 22일 나주시-프랑스 국제교류 협력단을 이끌고 프랑스 파리와 클레르몽페랑시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의 지속적인 교류 확대와 한불수교 140주년 연계사업에 대한 외교적 협력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윤병태 시장은 “이번 프랑스 방문은 나

주와 클레르몽페랑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자 유럽 도시와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교류를 시작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다”

며 “특히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계

기로 다양한 문화행사와 청소년 교류, 농업 분야 협력을 본격화해 나주를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진 기자 pose007@gwangnam.co.kr

여수, 인구감소 대응…생활인구 잡는다

주민등록 인구 8~14배…전남 시·군 중 월등

여수시는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인구감소 대응 TF 보고회를 열어 지방소멸 위기 대응 방안으로 ‘생활인구 기반의 지역 활력 창출’에 주목했다고 24일 밝혔다.

보고회는 최정기 여수시 부시장 주재로 13개 부서장이 참석해 청년, 일자리, 기반 조성 등 생활인구 흐름을 다양하게 창출하기 위한 시책을 논의했다.

시는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로 인한 재정 형편을 고려해 적은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19개 사업(신규 7건, 기존 사업 보완 10건, 법·제도개선 2

건)을 중점 발굴했다.

신규 시책으로는 여수형 청년마을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일레븐 브릿지 마라톤 대회, 2025 여수KOVOCup 프로배구대회, 섬섬여수 자율주행버스 운영 등이 제시됐다.

개선 과제로는 기존 어촌계, 수협, 영어조합법인인 행사한 양식업권을 지자체가 취득해 신규 귀어인에게 월 1만원에 제한하는 ‘공공형 만원 임대’가 언급됐다.

최정기 부시장은 “정주 인구 중심의 정책에는 한계가 있어 생활인구 기반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번 과제의 핵심”이라며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 추가 발굴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생활인구는 통근·통학, 관광·휴양, 업무, 경기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에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회 이상인 사람과 주민등록자, 외국인등록자, 국내거소신고자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올해 3월 말 발표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자체 맞춤형 지역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여수시 생활인구는 주민등록 인구의 8~14배로, 도내 16개 인구감소지역의 평균(4.9배)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보성벌교갯벌’ 지속 가능한 보전 방안 모색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 개최

보성군은 최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25년 보성군 갯벌습지보호지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보성벌교갯벌의 생태 보전과 지역 사회와의 조화로운 활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서형민 부군수를 비

롯해 갯벌 생태 전문가, 지역 위원, 세계유산등재추진단, 관계 공무원 등 총 24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보성벌교갯벌 생태 환경 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중심으로 갯대중 선정, 서식지 복원, 생태관광 연계 방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갯벌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어민과 지역 주민들의 삶,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한

균형 잡힌 접근이 강조됐으며,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관리 모델 구축이 위원회의 핵심 과제로 다뤄졌다.

군은 현재 ‘보성벌교갯벌’에 서식 중인 바닷새 74종 1만7000여개체를 기초자료로 삼아, 향후 보성을 대표할 갯대종을 선정해 생태관광 및 지역 브랜드 자원화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알락꼬리마도요, 노랑부리백로, 검은머리갈매기 등 법정보호종을 중심으로 후보군이 제시됐으며, 위원들은 갯대종이 군의 생태 정체성을 상징하는 핵심종이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보성=임태형 기자



장흥군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에퀴스베스코리아, 장흥그리드파워, 대명에너지 등 3개 기업과 국내 최대 규모인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장흥, 배터리에너지저장 투자협약

7640억 투자…3개 기업 240MW ‘국내 최대’ 규모

장흥군은 지난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BESS)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에퀴스베스코리아(대표 조연우), 장흥그리드파워(대표 이해구), 대명에너지(대표 서준형) 등 3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장흥바이오식품산업에 240MW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을 764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수요가 많을 때 공급하는 설비다.

240MWh 규모의 배터리에너지저장 시설은 약 700가구가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다.

3개 기업은 다음달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중앙계약시장 입찰에 선정되면 각종 인허가 취득 및 착공을 들어갈 예정이다.

군은 향후 15년간 장흥의 전력공급 안정과 출력제어 완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 군수는 “장흥 바이오 산단에 배터리에너지저장시스템 발전사업의 추진이 전남 서남 지역의 2035 탄소중립과 청정에너지 확보 성공을 위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적극 소통해 지역 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흥=정명수 기자

LOCAL

2025년 6월 25일 수요일

담양, 원데이클래스 운영

12월까지 다문화이해교실도

담양군은 최근 담양글로벌문화관에서 군민의 다문화 감수성과 정서적 치유를 돕기 위한 ‘공감톡톡 : 나를 위한 멋진 하루’ 원데이클래스를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9일 진행된 ‘라탄 트레이 만들기’를 시작으로 사운드베스, 라탄 드림캐처 만들기, 노알콜 칵테일 체험, 다도·다식 만들기, 키즈요가, 티코스터 만들기,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등 감각적이고 다채로운 체험형 강좌로 구성됐다.

결혼이주여성이나 자국 문화를 소개하는 ‘다문화이해교실’도 함께 진행돼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포스터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전화(061-381-5983, 070-8633-0288)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원데이클래스를 통해 군민과 관광객 모두가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일상 속에서 잠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gwangnam.co.kr

구례, 성평등 문화 확산 앞장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 간담회

구례군은 최근 마산면 일원에서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군민참여단의 활동사례와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순호 구례군수, 군민참여단 및 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내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군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개선 사항과 정책 제안 등에 대해 토론하며, 지역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김순호 군수는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우리 지역을 더 안전하고 평등한 공간으로 만드는 출발점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참여단과 함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구례를 만들어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은 일상생활 속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 사항 등을 발굴해 민·관의 소통창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례=전창제 기자 dong-eah@gwangnam.co.kr

https://www.instagram.com/hongdorestaurant/

배달의민족 주문가능

싱싱함이 살아있는 맛—

홍도횃집

점동 / 감성동 / 농어 / 광어 / 세고시

광주 남구 봉선로 19번길 3 | 062-652-0747

홍도횃집 지역소상공인

광남일보 | 사자평문인재육성

유비게 전문